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41호 2026년 11월 24일 화요일



로컬맛집·축제 등
유통업계
지역 협업 활발
L1

두피·모발관리
기술경쟁
헤어케어 고도화
L2



취업·정착 돕고, 해외 인재 육성… 뿌리 내리는 '자립의 씨앗'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수출입은행

한 사람의 작은 발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자립의 기회를,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다문화가족에게는 이동의 편의를, 개발도상국의 미래세대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전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이어가는 사회공헌의 모습이다.

수출입은행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금융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그 성과가 사회 곳곳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눔의 영역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창립 50주년을 맞은 올해는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활동부터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사회공헌, 개발도상국의 미래를 지원하는 금융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순히 도움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웃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12만㎞ 걸어 만든 희망

누군가에게 도움을 전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출퇴근길에 조금 더 걷고, 일상에서 시간을 내어 이웃을 찾는 작은 실천도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수출입은행이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진행한 '동행의 발걸음, 기부런' 캠페인에는 이러한 생각이 담겼다. 임직원들이 걸은 거리에 따라 기부금을 조성하고, 이를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환경 개선에 사용하는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난 4월 말부터 한 달간 진행된 캠페인은 임직원들이 총 5만㎞를 걸으면 전국 취약계층 아동 가정의 노후 주거지 개보수 사업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직원들의 참여는 당초 목표를 크게 웃돌았다. 전체 임직원의 약 절반인 671명이 참여해 2주 만에 목표를 달성했으며, 최종 누적 거리는 목표의 2.4배인 12만㎞에 달했다.

수출입은행은 참여 성과에 맞춰 기부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2.4배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난 6월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에 5억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전국 취약계층 아동 가정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임직원들이 일상에서 내디딘 걸음이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바꾸는 지원으로 이어진 셈이다. 수출입은행은 직원들이 사회공헌에 직접 참여하고, 그 성과를 이웃과 나누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황기연 수출입은행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도움에서 자립으로…희망씨앗

어려운 이웃에게 당장 필요한 물품을 전하는 일 만큼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다. 일자리를 얻고, 교육을 받고,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지원이 일상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씨앗'은 이러한 자립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취약계층의 생계와 교육을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취업과 사회적응, 경제적 자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계층 지원에 39억5000만원, 탈북민과 다문화가족 등 사회 신구성원의 사회적응 및 취업 지원에 21억9000만원을 투입했다.

장애인과 독거노인, 결손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생활 기반을 지원하는 한편, 탈북민 대안학교와 취업아카데미, 다문화 대안학교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자의 자립을 돕는 조직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도 넓혔다. 취약계층을 직접 돕는 것뿐 아니라 이들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수출입은행은 사회연대은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희망씨앗자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대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12개 기관을 선정해 기관당 1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 지원과 함께 맞춤형 전문 컨설팅과 역량 강화 교육도 제공한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이들이 제공하는 일자리와 서비스도 지속될 수 있다는 취지다.

◆ 국경 넘어 전하는 희망

국내에서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의 활동은 국경 밖으로도 이어진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이라는 특성을 살려 개발도상국의 교육과 생활환경 개선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희망씨앗 프로그램의 글로벌 사회공헌 분야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교육시설 개선과 의료·교육 지원, 아동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사회공헌 지원 규모는 2억9000만원이다.

교육과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작은 지원도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수출입은행은 국내에서 이어온 자립 중심의 사회공헌을 해외 소외계층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수출입은행이 수행하는 개발도상국 지원 금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으로, 기부 중심의 사회공헌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다만 교육과 산업 인프라를 확충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향한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11월 탄자니아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교육기관 건립 사업에 1억7000만달러 규모의 EDCF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EDCF의 첫 AI 분야 사업으로, 현지 기술인력 양성과 디지털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산업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당장의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성장 역량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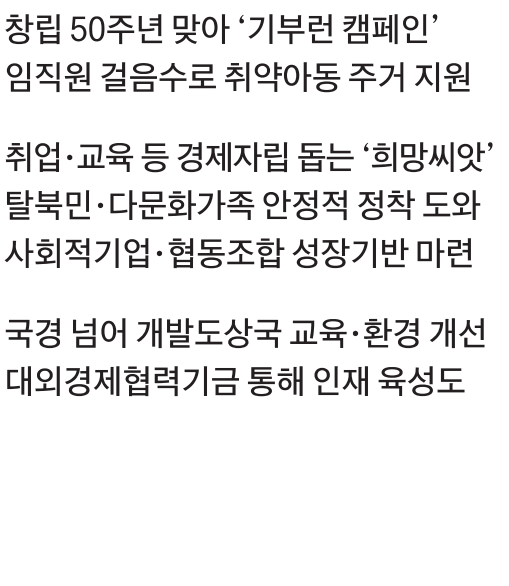


1 지난 4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동행의 발걸음, 기부런' 행사에 참석한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수은 본점 임직원들이 올해 1월 29일 서울역 인근 노숙인 대상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3 이동훈 한국수출입은행 선임부행장(왼쪽)과 나투 므왐바 탄자니아 재무부 차관이 탄자니아 다레살람에서 EDCF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 /수출입은행

창립 50주년 맞아 '기부런 캠페인'
임직원 걸음수로 취약아동 주거 지원

취업·교육 등 경제자립 돕는 '희망씨앗'
탈북민·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도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성장기반 마련

국경 넘어 개발도상국 교육·환경 개선
대외경제협력기금 통해 인재 육성도



메트로 한줄뉴스



▲"내일 아침 경질될 거야"…포체티노, 최악의 맨유 데뷔전 /사진 뉴시스
▲프로축구연맹, 시민구단 횡령 임금체불 사과…쇄신안 발표
▲'김지우 해트트릭' 한국, 뉴칼레도니아 6-0 꺾고 U-17 월드컵 32강행
▲'10년 만의 우승' FC서울, 28일 다자녀 가족 100가구 초청
▲권순우, ATP 메스 챌린저 준우승…데이비스컵 대표팀 합류
▲MLB FA 최대어 스쿠벌, 메츠와 9년 6050억원 계약…역대 투수 최대 규모